
 행정자치부	<h2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2>			 보건복지부
	2016년 10월 28일(금) 석간 (10. 28. 10:00 이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	
행정자치부	담당부서	자치행정과	배포일	2016. 10. 27.
	과 장	안 승 대	전 화	02-2100-3703
	사 무 관	정 찬 형		02-2100-3706
보건복지부	담당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	배포일	2016. 10. 27.
	단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3370
	서 기 관	강 준		044-202-3375

## 저출산 극복의 희망,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

- 행정자치부·보건복지부, '16.10.28. 「제17회 중앙·지방 정책협의회」 개최 -

-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-지방 공조체계가 본격화된다.
  - 행정자치부(장관 홍윤식)는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BEXCO 제 2전시장에서 「제17회 중앙·지방 정책협의회」를 개최했다.
  -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.
  - 특히, 이날 회의는 「제4회 지방자치박람회」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방안 논의에 의미를 더했다.

-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복지부의 '3차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'과 행자부의 '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계획'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.
  - ※ 복지부는 범부처 저출산 대책 총괄,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총괄
-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대책을 소개하면서, 지역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장려금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, 고용, 주거, 교육, 일·가정 양립 등 근본대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.
  - ※ (중전) 단기적 출산장려책을 통한 출산을 제고, 인구유입 위주 → (개선) 일자리·주거·교육 등 근본적 해법 모색으로 결혼·출산하고 싶은 지역 만들기
-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「출산 지도」를 구축하여 지자체 출산율, 지원정책, 평가결과 등을 공개해 지자체의 시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율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.
-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'저출산 대책' 분야를 신설하고,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확산하여 전국적 출산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.
  - ※ 우수사업에 특교세 30억원 교부, 우수시책경진대회 특교세 20억 교부
- 참석자들은 저출산 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,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, 총력대응체계 구축과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 저출산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.
-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"저출산 극복은 젊은 세대 증가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, 지역의 활력 제고는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 선순환 관계"라며 각 시도가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.